

日本語의 액센트에 대하여*

S. Robert Ramsey

본고는 제한된 지면 관계로 테크니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일본어 액센트와 필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로 하겠다.

일본어의 pitch 가락의 차이는 역시 한국 방언과 같이 변별적이다. 본고에서는 이 가락의 변별을 액센트라고 칭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악센트라고 하고 필자도 이 악센트라는 술어에 특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어 액센트는 최근 미국 등지 서양학자들의 많은 주의를 끌고 있다. 보통 서양학자들의 연구는 현대어를 위주로 하지만 본고는 역사적인 발달에 더 초점을 두어 먼저 그 역사적인 발달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필자가 연구한 일본어 액센트에 대한 결론은 일본어 액센트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학자들이 기본적인 사실을 오해한 채 연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본인이 지적하려는 기본적인 실수로 인해, 옛 일본어를 재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어 분석까지도 많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일본어의 역사적인 발달에 대한 정설 대신 본인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현대어와 고어에 대하여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풀린다.

정설이란 京都 방언의 액센트는 일본 祖語로부터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다른 지방의 방언들은 복잡한 변화를 거쳐 심하게 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방언에 대한 연구는 어떤 지방의 방언이 어떻게 京都식 방언에서부터 발달되어 왔는가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일본 방언은 모두 옛날에는 京都식 액센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세부적인 모순이 생겨도 京都 방언이 제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모순에 대해 주의하지도 않았다. 京都는 일본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이므로 일본 사람들은 京都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것 같다. 즉, 일본의 전통과 문화가 특히 잘 보존되어 왔으니까 언어 역시 그렇게 잘 보존되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平安時代 말기에 京都에서 쓰여진 문헌에 액센트를 기록한 표시가 있다는 점이다. 문헌연구가에 의하면 요즘 京都에서 들리는 액센트 체계하고 거의 같은 체계가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헌을 京都말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인 줄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이것에 대해 절대적일 정도의 언어학적인 반증이 있다. 현대 방언의 액센트 체계를 편견없이 조사해보면 그 이른바 정설이 무리라는 인상을 준다. 이 문제는 東京 액센트와 京都 액센트의 차이점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京都 액센트가 오래된 것이냐, 東京 액센트가 오래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본고는 어학 연구소 주최 제30회 월례 세미나(1979년 4월 24일)에서 구두 발표한 것임.

규슈 이남의 방언은 다루지 않고 일본 본토에 있는 방언만 다루면 된다. 일본 본토의 액센트 종류에는 東京식과 京都식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간단히 말해서 이 두 방언은 실제로 나타나는 pitch는 아주 다르지만 그 체계는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두 가지 액센트의 체계에 있는 변별적인 요소는 pitch가 어디서 내려가느냐 하는 위치인데 그 위치가 바로 액센트이다.

〈表 1〉. 京都와 東京의 pitch 比較

뜻(+ga)	京都	東京
端	hāji-ga	ha ji-ga
橋	hā ji-ga	ha ji-ga
箸	ha ji, ha ji-ga	hā ji-ga

〈表 2〉. 京都와 東京의 액센트 比較

뜻	京都	東京
端	hasi	hasi
橋	ha ¹ si	hasi ¹
箸	¹ hasi	ha ¹ si

〈表 1〉과 〈表 2〉에서 京都와 東京 방언의 차이는 京都 방언에서는 東京 방언보다 pitch의 위치 즉 액센트가 체계적으로 항상 한 음절 앞에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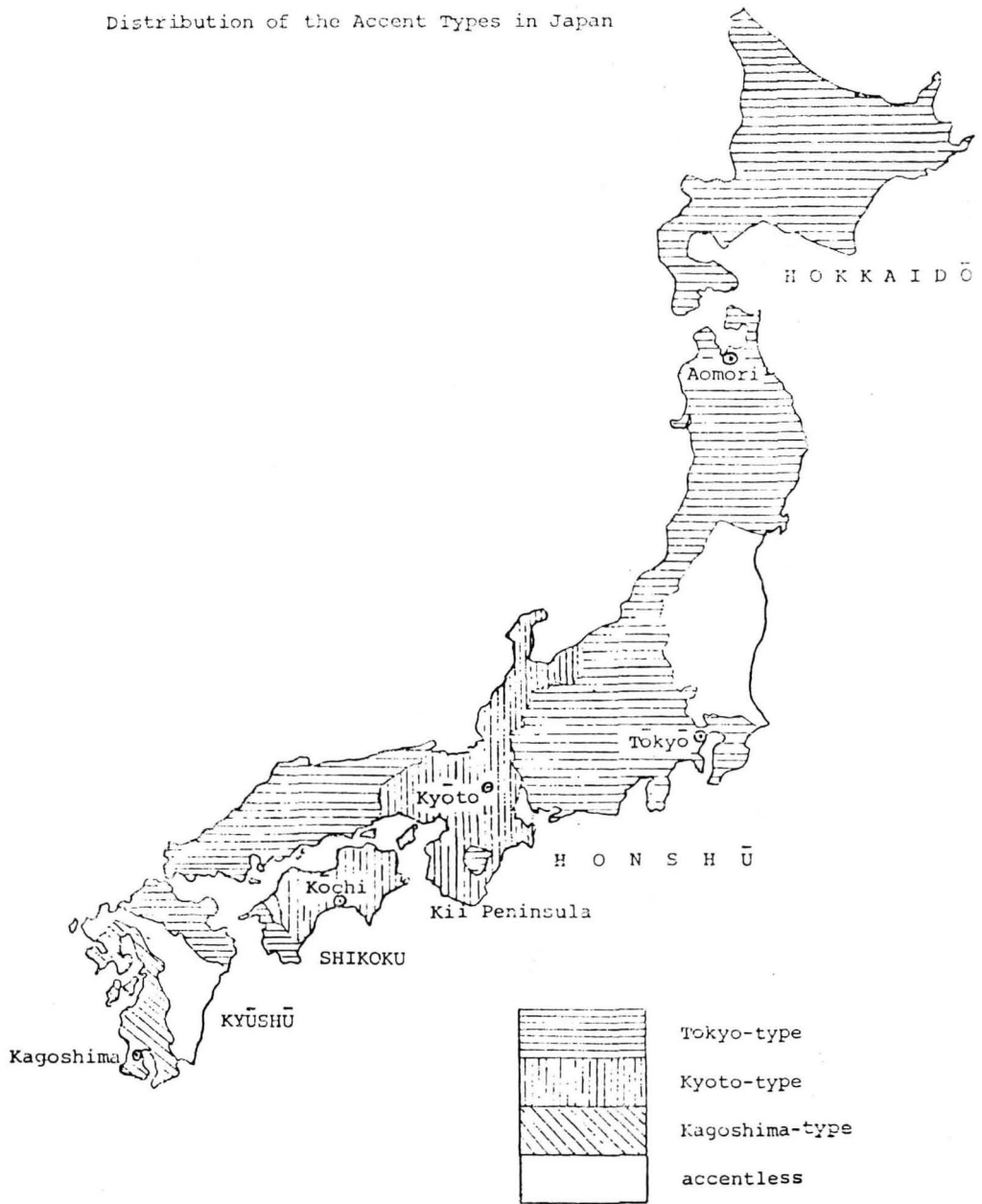
정설에 의하면 옛날에 東京 액센트가 京都 액센트와 같았는데 인젠가부터 東京 액센트가 변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통설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일 명료한 문제는 그 방언 분포에 있다.

다음의 지도에서 보다시피 京都식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방언은 전부 옛날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테 몰려 있으나 東京식 액센트를 가진 방언은 규슈에서 후카이도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분포되어 있으므로 서로 교류가 있을 수 없다.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정설에 의하면 東京식 액센트 방언들이 여기 저기서 서로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으로 똑 같이 변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방언지리학의 원리 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그 원리를 거꾸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된다.

사실 방언 분포 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京都말을 흉내내어 그것이 그 주위 지방에 퍼졌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방언지리학의 예인 것 같은 인상마저 준다. 그리고, 京都식 방언 지역 속에서도 여기저기 심지어 깊은 시골에서 까지도 東京식 액센트가 발견되는데, 깊은 시골은 교통이 나빠서 京都식 액센트의 영향을 받지 못해 東京식 방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중세 일본시대에 京都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액센트를 한 음절 앞에 옮겨 말했다. 예를 들어 otoko|ga > oto|koga식으로 ga가 내려간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말할 때는 미리 한 음절 앞에서 음을 내려 말했다. 한두 단어가 아니라 어휘 전부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상이 필자의 기본적인 풀이다.

이 가설을 金田一와 平山 등 액센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東京과 京都식 액센트 차이는 京都에서 액센트를 한 음절씩 왼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東京에서 액센트가 한 음절 오른쪽으로 이동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는 타당한

Distribution of the Accent Types in Japan



이유가 있다. 즉 東京 액센트가 오른쪽으로 옮겨질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일본어의 액센트는 pitch가 내려가는 위치이다. 그렇지만 京都방언을 자세히 보면 다른 변별적인 요소도 있다. 즉 어두의 pitch가 낮으나 높으나 하는 차이이다. 예를 들면 ‘hasi (端)’와 ‘hasi(著)’의 차이를 McCawle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asi’는 kono/hasi (these chopsticks)와 같은 어형에서 단어 앞에 pitch fall이 나타나므로 ‘!hasi’ 처럼 pre-accent를 찍는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분석이며 McCawley의 분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체는 金田一春彦교수의 분석이며, McCawley가 pre-accent라는 용어를 붙였을 뿐이다.

이처럼 pre-accent라는 것을 형태음운론적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 일본어의 액센트는 pitch fall의 위치인데 단어가 시작하기 전에 아무 것도 없으니 추상적인 pitch fall밖에 있을 수 없다. 즉 단어 자체가 낮은 가락으로 시작되는 것이 fall이 없다. 京都 사람들은 보통액센트인 경우 pitch fall을 느끼지만, pre-accent인 경우 pitch fall이 아니라 語頭가 낮은 가락이라고 느낀다고 한다. 즉 pre-accent는 tone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 느낌뿐만 아니라 액센트 체계의 규칙은 pre-accent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表 3〉. 複合語를 構成할 때에 첫번째 要素의 액센트

	基本語形	複合語形
보통액센트가 있는 名詞:	ko ^o omori “bat”→koomori(-gasa)	[액센트가 탈락된다.]
pre-accent가 있는 名詞:	i ^o to “thread”→i ^o to(-ma ^o ki)	[액센트가 남는다.]

〈表 3〉에 나타나듯이 보통 액센트인 경우 합성어의 첫 번째 요소, 즉 맨 앞에 있는 명사에 액센트가 있으면 그 액센트가 저절로 탈락되지만, 앞에 있는 명사에 pre-accent가 있으면 그 pre-accent는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京都와 東京의 액센트 대응을 살펴보면 京都말의 pre-accent가 있는 단어에 대응하는 東京 액센트는 첫째 음절 직후에 pitch가 내려간다(cf. 表 5의 2.4와 2.5). 그렇다면, McCawley, 金田一, 平山 등의 학자들처럼 pre-accent가 한 음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리다. 즉 pre-accent는 언어학자의 분석을 위해 도입된 완전한 추상물인데 이것이 pitch fall로 변한다는 것은 무리다.

반면, 필자의 분석은 합리적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원래 첫째 음절에 명료한 pitch fall이 있었는데 규칙적으로 액센트를 왼쪽으로 옮기면 단어 앞으로 pitch fall이 가야 하는데 앞에서 fall 할 수 없으니 그 단어는 변별적으로 낮은 가락으로 시작한다. 원래 pitch fall의 흔적은 어떤 형태 음운론적인 교체 뿐인데 이것으로 언어학자들이 pre-accent라는 가설을 세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 pitch fall은 없어졌다.

京都에서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언어학적인 현상이 아주 많아 필자의 가설을 받아들이면 쉽게 증명된다. 먼저 문헌에 나오는 자료를 살펴보겠다. 12세기 平安時代의 문헌을 보면, 음절 옆에 점이 찍혀 있는데 일본 학자들은 이 점을 聲點이라고 한다. 聲點은 가나로 표시된 음절 옆에 찍혀 있는데, 하나는 왼쪽 밑에 찍혀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왼쪽 위에 찍혀 있다. 왼쪽 밑에 찍혀 있는 점은 平聲을 나타내고, 왼쪽 위에 찍혀 있는 점을 上聲을 나타낸다고 한다. 일본어의 자료가 훈민정음 보다 3세기가 더 오래되었지만 일본어의 聲點은 훈민정음 방점보다 양적이나 질적으로 열등하고 훈민정음 방점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어의 聲點이 있는 문헌은 극히 제한되어 주로 類聚名義抄라는 사전 등에만 있으므로 그 단어의 기본적인 accent밖에 알 수 없다, 가끔 日本書紀古寫本 같은 문헌에 pitch가

문장속에 가끔 기록되어 있지만 양이 적다. 만약에 한국에도 중세 국어의 훈몽자회라는 문헌만 존재한다면 한국의 사정도 일본과 비슷할 것이다. 문제는 훈민정음이나 훈몽자회와는 달리 聲點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일본의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어의 聲點을 가지고 옛 일본인들이 무슨 음가를 표시하려 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점이다. 따라서, 두 종류뿐인 일본어 聲點의 음가를 해석하려면, 현대 방언의 액센트와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현대 한국 방언에서는 재료가 없어도 훈민정음 방점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옛 일본말의 경우 그 pitch를 재구해야 한다.

20세기 초에, 일본 학자들은 聲點을 현대 방언의 pitch와 비교하여 해석했다. 京都는 일본 전통의 고향이며 聲點이 있는 문헌은 전부 京都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생각과 平聲을 낮은 가락이라고 하고, 上聲을 높은 가락이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옛 京都말과 현대 京都말의 pitch가 그럴 듯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京都말에 대한 편견이 컸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재구는 각 음절마다 고립시켜서 비교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그 時代 지식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 액센트의 기본적인 변별 요소는 음절마다의 pitch, 즉 tone 이 아니라 pitch가 어디서 내려가느냐하는 것이다. 그러나, pitch fall의 중요성은 옛날 말에 대한 聲點 분석이 이루어져 정설이 되어버린 후에 발견되었다.

그러면, 표면적인 pitch 대신 액센트로 표시하여 현대어와 옛날 말의 聲點을 비교해 보겠다.

<表 4>. 動詞의 액센트 比較

A. (Unaccented) E=平聲(Even), R=上聲(Rising)

뜻		12 ^c 日語의 pitch			京都式方言	東京方言
			定 說	本人의 說		
聞 鈎	連體形	RR	●●	○○	kiku	kiku
	派生名詞	RR(-R)	●●▲	○○△	turi	turi
飾	連體形	RRR	●●●	○○○	kazaru	kazaru
	派生名詞	RRR(-R)	●●●▲	○○○△	kazari	kazari

B. (Accented)

뜻		12 ^c 日語의 pitch			京都式方言	東京方言
			定 說	本人의 說		
編	連體形	ER	○ ●	● ○	ɾamu	aɾmu
	派生名詞	EE(-R)	○○ ▲	●● △	aɾmi	amiɾ
光	連體形	EER	○○ ●	●● ○	hiɾkaru	hikaɾru
	派生名詞	EEE(-R)	○○○ ▲	●●● △	hikaɾi	hikaɾiɾ

<表 4>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필자의 聲點에 대한 분석은 통설과는 정반대이다. 필자의 분석이 옳다면 옛날 京都말의 액센트는 현대 東京말의 액센트와 일치가 되는데, 소위 정설에 따른다면 옛 京都말은 현대의 東京 방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현대 東京 방언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상하고 복잡한 규칙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기

로 한다.

필자의 가설에 대해 간단히 두 가지 증명을 하겠다. 첫 번째는 비교 언어학적인 증명이다.

〈表 5〉. 名詞의 액센트 比較

類	例	12 ^c 日語의 pitch		京都方言	東京方言	青森方言	
			定 說				本人의 說
2.1	牛	RR, RR(-R)	●●▲	○○△	usi	usi	usi
2.2	石	RE, RE(-R)	●○▲	○●△	i ¹ si	isi ¹	isi
2.3	犬	EE, EE(-R)	○○▲	●●△	i ¹ nu	inu ¹	inu ^r
2.4	笠	ER, ER(-R)	○●▲	●○△	¹ kasa	ka ¹ sa	ka ¹ sa
2.5	猿	ER, ER(-R)	○●▲	●○△	¹ saru ¹	sa ¹ ru	sa ¹ ru

E=平聲(Even)

R=上聲(Rising)

〈表 5〉를 보면 東京 방언과 京都 방언은 두 종류의 액센트가 합류되어 있다. 정설에 의하면 합류 이전에 2.3은 원래 액센트가 없었고 2.2와 같은 액센트만 있었는데 합류로 인해 2.3에 액센트가 생겼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 京都와 東京 방언에 2.2와의 합류로 인해 2.3에 액센트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東京 이외의 다른 東京식 방언 예를 들어 혼슈의 양쪽에 있는 青森와 松江방언에서는 이러한 합류가 생기지 않고 2.2는 2.1과 합류되었는데도 현대 青森 방언에는 액센트가 없다. 또, 아오모리와 마쯔에 방언에서는 2.2와 2.3이 합류되지 않았는데도 액센트가 나타난다. 정설에 따라 원래 액센트가 없었는데 현대어에 액센트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필자의 가설에 의하면 2.3의 액센트는 그 前부터 있었으며 변하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정설에 따른다면 〈表5〉에서 보다시피 京都 방언 액센트를 가지고 東京 방언 액센트는 파생시킬 수 있지만, 아오모리 방언 액센트는 파생시킬 수 없다.

둘째는 내부적인 재구라는 언어학적 방법이다. 어떤 언어에서도 음운론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하기 전의 흔적이 형태 음운론적인 교체에 남아 있어 언어학자는 변화 이전의 체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데 이러한 교체를 실마리로 사용한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京都 방언 액센트 체계에 역사적으로 액센트가 변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형태 음운론적인 교체가 있는데 그 예 중의 하나가 복합명사이다.

〈表 6〉. 複合名詞의 pitch

類	京 都 方 言		東 京 方 言	
2.1	koobe <u>-usi</u>	mada <u>ra</u> -usi	ko obe <u>-usi</u>	ma <u>da</u> ra <u>-usi</u>
2.2	mi kage <u>-isi</u>	aka <u>ma</u> -isi	mi <u>kage</u> -isi	a <u>kama</u> -isi
2.3	ni <u>hon</u> -inu	aki <u>ta</u> -inu	ni <u>hon</u> -inu	a <u>kita</u> -inu
2.4	sa <u>ndo</u> -ga sa	ka <u>ku</u> re-ga sa	sa <u>ndo</u> -ga sa	ka <u>ku</u> re-ga sa
2.5	si <u>ko</u> ku-za ru	te <u>ngu</u> -za ru	si <u>ko</u> ku-za ru	te <u>ngu</u> -za ru

〈表 6〉에서 보다시피 어떤 명사가 복합어 속에 나타나면 〈表 5〉의 고립된 모습과 다르다. 그리고 京都 방언과 東京 방언에 나타나는 복합 명사의 pitch는 필자가 재구한 pitch와 같다.

이러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합어라는 형태적으로 복잡한 환경에서 京都말이 東京말을 차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필자가 세운 가설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생긴 것 같다. 14세기, 이른바 요시노 남북조 시대에 京都에서 전쟁이 있어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권력이 귀족의 손에서 무사의 손으로 넘어감으로써 사회적인 변화는 물론 언어도 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언어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필자의 추측이지만 언어의 변화가 1445년 이전에 생겼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들이 있다. 1445년에 쓰여진 毛端私珍抄라는 문헌에 京都 방언이 그 주위의 방언과 다르다는 자료가 나와 있으며, 저자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후, 포르투갈 선교사도 이와 똑같은 증거를 제시하여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京都 방언에서 액센트의 변화가 생긴 후, 그 주위 지방 사람들이 이를 흉내내려고 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주위 지방에 전달되었으나 고루고루 퍼진 것이 아니어서 앞에 있는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京都식 방언의 바다 속에 여기저기 東京식 방언이 섬처럼 남은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지금까지 왜 학자들이 정설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옛날부터 방언 분포가 잘 알려져 정설이 방언 지리학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京都 방언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한 학자가 없고 오히려 어떤 일본 학자는 일본어가 특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정설이라는 것이 이렇게 학자들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는 힘이 강하여, 일단 정설로 정해진 순간부터 아무도 그 정설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필자는 깜짝 놀랐다. 오십여 년간 수천여 논문과 많은 책이 나왔지만 정설에 대해 의심은 품은 적이 없이 수수께끼같이 이상하다고만 한 점들이 쉽게 해결되는 필자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본적인 것부터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본어 연구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

參 考 文 獻

- Chew, John Jr. (1963) 'Accent in Japanese Compounds,' *Papers of the CIC Far Eastern Language Institute*, 85-7, Committee on Far Eastern Language Instruction, Ann Arbor.
- Endō Kunimoto (1974) 'Kyosei-ten to dakuon,' *Kokugo-kokubun* 475, 35-48.
- Hashimoto Shinkichi (1966) *Kokugo on 'in-shi*, Iwanami, Tokyo.
- Hattori Shirō (1931) 'Kokugo sho-hōgen no akusento gaikan, III,' *Hōgen* 4, 11-27.
- (1942) 'Bumō-ki no kenkyu,' *Nihon-hōgen-gakkai hen: Nihongo no akusento*, 123-59, Chūō-kōron, Tokyo.
- (1951) 'Genshi-Nihongo no akusento,' Terakawa et al., 45-65.
- Hayata Teruhiro (1971) 'Accent in Old Kyoto and Some Modern Japanese Dialects,' *Gengo no kagaku* 4, 139-80.
- Hirayama Teruo (1960) *Zenkoku akusento jiten*, Tōkyō-dō, Tokyo.
- (1967) *Ryūyū Sakishima hōgen no sōgō-teki kenkyū*, Meiji-shoin, Tokyo.

- Ikuta Sanae (1967) 'Kinki akusento-ken henkyō-chiku no akusento in tsuite,' Terakawa et al., 255-346.
- Kindaichi Haruhiko (1951) 'Nihon shisei kogi,' Terakawa et al., 629-703.
- (1955) 'Kinki chūō-bu no akusento oboegaki,' *Tōjō Misao-sensei koki-shukuga ronbun-shū*, 323-44, Kinki-hōgen-gakkai, Osaka.
- (1958) *Meikai Nihongo akusento jiten*, Sansei-dō, Tokyo.
- (1964) *Shiza-kōshiki no kenkyū*, Sansei-dō, Tokyo.
- (1974) *Kokugo akusento no shi-teki kenkyū: genri to hōhō*, Haniwa-shobō, Tokyo.
- (1975) *Nihon no hōgen: akusento no hensen to sono jissō*, Kyōiku-shuppan, Tokyo.
- Komatsu Hideo (1959) 'Heian-makki Kinai-hōgen no onchō-taikei 1, 2,' *Kokugogaku* 39, 49-74, 40, 55-81.
- Martin, Samuel E. (1975) *A Reference Grammar of Japanes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1976) 'Earlier Japanese,' ms.
- McCawley, James D. (1968) *The Phonological Component of a Grammar of Japanese*, Mouton, The Hague.
- Miller, Roy Andrew (1967) *The Japanese Language*,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 Mizutani Osamu (1960) 'Report on One Characteristic of Accents of the Nagoya Dialect,' *Onsei-gakki-kaihō* 102, 8-10, 103, 16-7.
- Mochizuki Ikuko (1974) *Ruiju-myōgi-shō yonshu-shōten tsuki wakun-shūsei*, Kasama-shoin, Tokyo.
- Ogawa Muneo (1942) 'Kinki akusento ni okeru gejō (otsu)-kei no seishitsu,' *Nihon-hōgen-gakkai hen: Nihongo no akusento*, 229-256, Chūō-kōron, Tokyo.
- Ōhara Takamichi (1951) 'Kinki akusento ni okeru jōge-gata meishi no kō-rui otsu-rui no betsu no hassei ni kan-suru ichi-kōsatsu,' Terakawa et al., 415-52.
- Okada Naoko (1956) 'Nihon-shōki kosha-bon no akusento to Kokin-kunten-shō no akusento ni tsuite,' *Joshidai-bungaku* 8, 51-69, 9, 1-56.
- Okuda Kunio (1971) *Accentual Systems in the Japanese Dialects: A Generative Approach*, Bunka-hyōron, Tokyo.
- Okumura Mitsuo (1974) 'Sho-hōgen akusento bunpa no jiki-kango akusento no kenkyū,' in Fujiwara Yoichi ed., *Hōgen kenkyū sōsho*, vol. 3 (Akusento), 1-38, Miyai-shoten, Tokyo.
- Ramsey, Samuel Robert (1977) 'Problems in Reconstructing Proto-Japanese Accent,'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s of Japanese and Korean at the 1977 Linguistic Institute held at the University of Hawaii.
- (1979) 'The Old Kyoto Dialect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apanese Accent,'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9.1, 77-86.

- Sakurai Shigeharu (1975) *Kodai kokugo akusento-shi ronkō*, Ōfū-sha, Tokyo.
 ——— (1976) *Chūsei kokugo akusento-shi ronkō*, Ōfū-sha, Tokyo.
 Terakawa Kishio, Kindaichi Haruhiko, and Inagaki Masayuki, eds. (1951) *Kokugo akusento ronsō*, Hōsei-daigaku shuppan-kyoku, Tokyo.
 Tokugawa Munemasa (1972) 'Towards a Family Tree for Accent in Japanese Dialects,' (translated by J.D. McCawley.) *Papers in Japanese Linguistics* 1, 301-20.
 Tsukishima Hiroshi (1951) 'Jōben-bon Shūi-waka-shū shosai no akusento ni tsuite,' Terakawa et al. eds., 107-78.
 Yamana Kunio (1951) 'Totsugawa onchō,' *Onsei no kenkyū* 7, 191-201.

ABSTRACT

On Japanese Accent

S. Robert Ramsey

A previously unquestioned view about Japanese accent has been that the dialects spoken around the old capital of Kyoto are the most conservative in Japan. Proto-Japanese accent has been made virtually identical to the modern Kyoto system. But this view does not accord with the linguistic evidence, which points unmistakably towards innovations in Kyoto.

The present article outlines a completely new interpretation of Japanese accent history, according to which the Kyoto dialect separated from the surrounding dialects in historical times. The principal structural change was the movement of the accent locus one syllable to the left. The original accent locations have been preserved in other main-island dialects, including that of Tokyo.

Once examined from this new viewpoint, a number of mysteries about Japanese accent can be clarified. Some of these long-standing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are discussed her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ew York 10027
 U. S. A
 (Received 24 April 1979)*